

“밀 자급률 1.6%·재고 4만...정부 대책을”

농민단체 “생산 장려해놓고 모르쇠...오락가락 정책에 소비부진”

“1만5천t 잉여곡 처리 안되면 파종 중단...수매·급식 의무화할”

자급률은 고작 1.6%인데 우리밀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재배를 장려해놓고 소비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광주시우리밀생산자위원회 등 밀 생산자와 농민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5000t에 달하는 우리밀 재고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밀 소비시장 규모는 2만5000t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오락가

락 정책과 극심한 소비 부진에 따라 재고량은 4만t이 누적됐다”며 “1만5000t의 잉여곡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잉여곡 처리 대책이 없으면 올해 파종은 중단 위기에 처하고 생산 기반은 무너질 것”이라며 “주정용 밀 공급, 군납제도와 등 실질적인 우리밀 농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근시안적 농정을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밀생산자단체와 가공유통단체, 전남도 등과 지난 2015년 9

월 우리밀 파종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산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쌀쌀용 쌀 수입에 따라 우리밀 소비정책을 실패했다. 재배·생산을 독려해놓고 소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입밀의 국내시장 독점(99%)도 지적했다. 이는 수입밀 관세가 0%인 까닭에 우리밀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해 독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5000t을 주정용으로 납품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40kg당 4만 2000원에 수매한 우리밀을 3만9000원에 납품하면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으로 매년 주정원료에 우리 밀 1만t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학교 급식 등 대형소비처에서 우리밀 소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쌀 생산 조정제 대체작물로 제2의 식량인 우리밀을 심도록 하고 대북지원 대상에 쌀뿐 아니라 우리밀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우리밀 1만t을 주정 원료로 공급하고 제비용의 보전과 양곡관리법에 의한 우리밀 공공비축용 1만t 소요예산을 편성,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구조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미대사에 조윤제 카이스트 교수 내정

문 대통령, 주중대사 노영민·주일대사 이수훈 교수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주(駐)미 대사에 조윤제(65)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조빙교수를 내정했다. 또, 주중국대사에는 노영민(60) 전 의원, 주일본대사에 이수훈(63)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이들 주외국 대사가 발표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112일만으로, 문 대통령은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한 아그레망(주재국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정외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해당국에 아그레망 요청을 완료해 1주에서 수주간에 걸쳐 우리나라로 아그레망이 오면 그때 접수되는 것”이라며 “아그레망이 한국으로 접수 완료됐을 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제 신임 주미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지냈고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유럽연합·독일 특사 임무를 수행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대사를 지냈으며,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

주미·주중·주일대사 프로파일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일대사
 조윤제 (65) 부산	 노영민 (60) 충북 청주	 이수훈 (63) 경남 창원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청주고, 연세대 경영학과	마산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박사
주영국 대사,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 특사·독일 특사 한영미래포럼 의장	제17~19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홍보당 위원장	경남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대통령직무 수행 이사사태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선대본부 공동 조직본부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의 중진 의원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문 대통령 당선 뒤 정경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다뤘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남대 등등문제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산고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 잇단 미사일 도발...‘사드 경제피해’ 수습조원

출구 없는 한반도 외교·안보

북미 관계 또다시 격랑

중국과 관계회복 요원

문 대통령 주도권 못잡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난제의 수렁에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해방 조짐을 보이는 듯했던 한반도 안보 환경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미국의 강력대응 천명으로 또다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압박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해지는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북한과 사드 난제를 넘겨받은 문 대통령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論)은 북한의 다면적인 도발로 국면이 더욱 꼬이고 있다.

대화 제의에 잇단 도발로 응답하는 북한에 더는 마땅히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대북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이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화 시킨 만큼 그에 상응한 국면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극한의 대응’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군사적 옵션 보다는 원유공급 중단과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대북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기류 변화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충돌 위기에서 대화 무드로 전환했지만 북한이 IRBM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또다시 군사행동 카드를 만

지적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상 공개 등 상응한 군사행동으로 맞서면서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지만 일촉즉발의 안보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또 다른 부담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가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대중(對中)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

지 나온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 국면이 접어들어야 사드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고 경제적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식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주(駐)미·중국 대사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윤제 주미대사, 노영민 주중대사 내정자 모두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폭넓은 외교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금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담장예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원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들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개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 선거 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형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명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일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특전

지난 34년간 특화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자격 취득희망사, 국가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전문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여 수료후 모임세 질상후 평생지도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 마감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3시~5시, 야간: 7시~9시	매주(수요일) 야간: 7시~9시	매주(목요일) 야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점, 삼거리 코너(뒷집 직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치저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임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면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산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면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십니까?
퇴직이후가 걱정되십니까?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2017년 8월 29일(수) ~ 2017년 9월 8일(금)
- 교육기간: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usun.ac.kr/peol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5일(화) 야간 7시

- 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9월 8일(금)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i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